

2024. 5. 17.(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1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이진구

2133-2210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3쪽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종민

2133-2224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 출시... 7월부터 1·2·3·5일권 도입

- 외국인 관광객·국내 단기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권 출시...친환경 교통혁신 수혜자 폭 넓혀
- 1일권(5천원), 2일권(8천원), 3일권(1만원), 5일권(1만5천 원)...저렴한 가격으로 서울투어 가능
- 오는 7월부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은 간편하게 충전 후 서울 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

- 서울시는 '24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단기 방문객 위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은 총 4개 권종(▲1일, ▲2일, ▲3일, ▲5일권)으로 구성되는데, 이로써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은 5,000~1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시 면허 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관광권 이용자도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대공원 입장료 50% 할인 등 기후동행카드에 적용되는 문화·공연 시설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관광객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단기간 서울을 방문하는 국·내외 시민들에게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자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 ‘기후동행카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이나 관광 목적으로 단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내국인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수요 역시 높아졌다. 여기에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에 발맞추어, 매력특별시 서울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교통분야의 고민이 더해지면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을 출시하게 됐다.
- 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교통 패스를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한 관광객의 호응이 크다. 서울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최초 무제한 단기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을 도입, 서울을 찾는 방문객들은 교통비 부담없이 세계적인 수준의 서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의 명소를 마음껏 방문할 수 있게 된다.
- ‘기후동행카드 관광권’ 가격은 ▲ 1일권 5,000원 ▲ 2일권 8,000원, ▲ 3일권 10,000원, ▲ 5일권 15,000원으로, 1일 기준 2~3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선택한 기간동안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7월부터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관광플라자 관광정보 센터(종로구 청계천로), 명동 관광정보센터,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에서 실물카드를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선설 역사 내 충전기에서 자신의 일정에 맞는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어 리플릿과 영문 안내 홈페이지도 마련될 예정이다.
  
-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실물·모바일 카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간편히 모바일카드를 발급받거나,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 신림선·우이신선설 인근 편의점에서 실물카드를 구매 후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선설 역사 내 충전기에서 1, 2, 3, 5일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면 된다.
  - 1, 2, 3, 5일권은 기존에 사용하던 기후동행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지만 충전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는 30일 권과 달리 충전 당일부터 바로 사용이 개시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관광권 출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신개념 교통혁신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에게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매력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